

카자흐스탄의 국민 음료, 차

카자흐스탄사무소

차를 즐기는 카자흐스탄

- 유목민족인 카자흐스탄은 육식위주의 식단에서 야기되는 질병예방과 갈증해소를 위해 전통적으로 차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인구의 99%가 매일 차를 마실 정도로 차 소비량이 높다. 1인당 평균 차 소비량이 1.4kg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차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다.

차 제조업체 동향

- 카자흐스탄의 차 제조기업은 Assam, Simba, Nauryz, Tengri 등의 차 브랜드를 지닌 Tea House가 대표적이다. 특히 Assam은 카자흐스탄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이다. 이 외에도 Assam과 함께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iala(모기업 RG Brands)와 Greenfield와 Tess 브랜드를 지닌 러시아 기업 Orimi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카자흐스탄 주요 차 브랜드 현황 |

업체명	Tea House	RG Brands	Unilever	Orimi Trade
제품 이미지				
제품명	ASSAM (티백 25포)	PIALA (티백 25포)	Lipton (티백 25포)	Greenfield (티백 25포)
가격 (Galmart*)	KZT 260	KZT 245	KZT 260	KZT 418
업체명	Wealth Finance Group	Orimi Trade	AHMAD	Orimi Trade
제품 이미지				
제품명	BASILUR (인 100g)	TESS (티백 25포)	AHMAD (티백 25포)	Princessa Nuri (티백 25포)
가격 (Galmart*)	KZT 1,600	KZT 365	KZT 403	KZT 210

* Galmart : (카자흐스탄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 기준 가격조사

한국 차 시장진출 가능성

- 카자흐스탄 차 시장은 이미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액상 및 분말형 차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자·생강 등 원료 특성을 강조한 마케팅이 요구된다.